

Best Program



# 자조모임 활용한 저소득 여성한부모 가정 역량강화 'Big Moms Club'

| 글 : 김은정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 가족복지상담센터 팀장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마포구 성산2동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는 1,800여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빈곤지역이다.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독거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이다.

이중 한부모 가정은 성산2동의 전체 수급권 691가정의 약 15%인 100가정에 이르고 있다. (2004 마포통계연보) 특히 한부모 가정의 대

다수(82.1%)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한부모 가정의 경우 사회의 편견에서 오는 낮은 자존감,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성역할의 혼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이를 이야기하고 나누고 지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거의 없어 복합적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오남 2004, 허정은 2003, 박영란 1998 외)

본 기관은 개관 이래 지속적으로 여성 한부모에 대해 개입했으며 한부모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체감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2004년부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망을 연계 활용하여 저소득 여성 한부모 가정에 대한 통합적 개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들의 자존감 및 가정운영능력이 향상되어 자발적인 자조모임이 형성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친목에 기반한 단순한 자조모임만으로는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이끌기에는 미진한 점이 있었다. 이는 “우리끼리 모이면서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좀더 함께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능력을 갖춰서 우리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우면 좋을 것 같아요” 등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한부모들 스스로가 모임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과 개인적인 역량강화를 넘어, 자신의 가족문제를 비롯해 공동 가족 문제의 해결주체로서 자조모임을 성숙, 발전시키려는 욕구도 드러났다. 또한 “이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혼가정이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형태의 하나로써 인식개선을 이끌어내는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2004년 1월 사업을 시작하며 1차년도 ‘한부모의 역량강화’, 2차년도 ‘역량강화를 통한 자조모임 형성 및 활동’이라는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3차년도에는 자조활동의 기반이 마련된 여성 한부모들의 규모와 활동을 확대한 다양한 자조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한부모의 지속적인 자조 및 자기성장의 기회를 도모하였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시하여 한부모들이 수혜받는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족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입하였다.

### 계층별 · 대상별 · 자녀별 상이한 대상의 욕구에 근거한 프로그램

한부모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근



거한 일정, 내용, 방법에 있어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대상자 모집시 낙인에 민감한 집단 특성 및 참여자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고려, ‘한부모 모임’이 아닌 ‘자녀 공부방 학부모 모임’으로 개입을 시작하여 점차 ‘한부모 모임’으로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고 확장하였다. 또한 한부모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은 저녁시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므로, 항상 간단한 저녁식사를 준비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시 자녀들을 돌봐 줄 수 있는 탁아인력이 상주하도록 하여 높은 효과성과 대상자 만족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 ‘여성’으로서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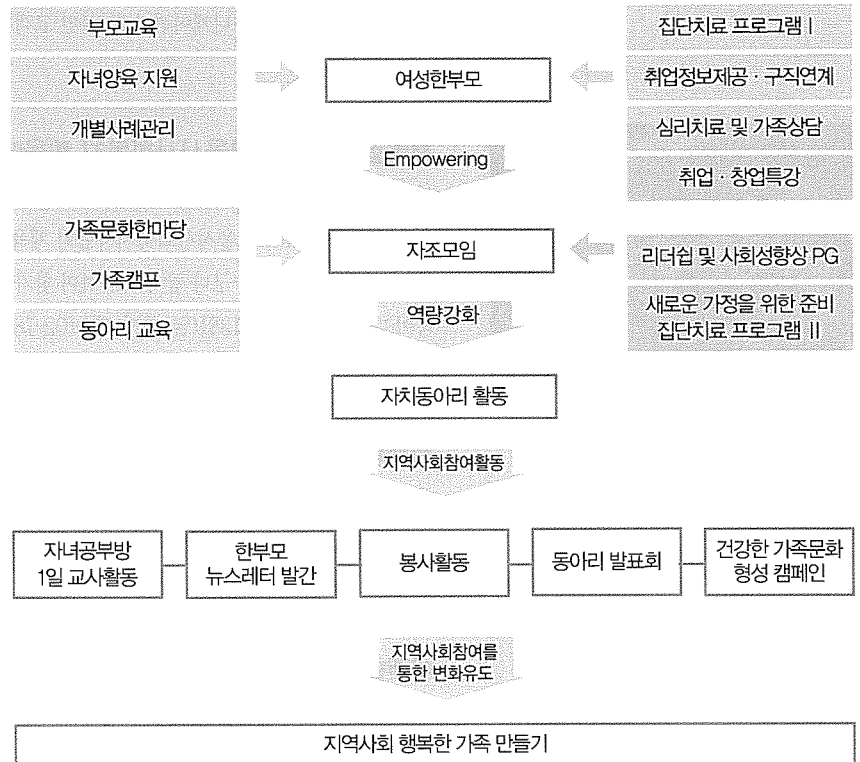
자녀공부방 지원, 가족마라톤 및 가족문화체험 참여, 부모교육 등 ‘양육자 및 어머니’로서의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함과 동시에,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 현실치료요법, 요가, 성교육수다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녀나 가족 간의 관계를 넘어 ‘여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욕구를 확인하고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스스로 ‘우리들만의 커뮤니티

티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자조모임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 가족문제 공론화 및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인식개선의 기반 마련

건강한 가족만들기 캠페인,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개별 대상가정 혹은 '요보호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넘어, 한부모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며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2기 한부모 프로그램 모임에 1기 한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며 힘을 북돋아주거나 강사로 초청하는 등, 개인의 문제를 전체가족의 문제로 공론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참여자들이 자녀 학교에 직접 방문,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해오도록 하는 관례와 양부모가 정상인 조사서 양식에 대해 항의하고 교사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는 등, 한부모들의 인식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제기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와 변화를 모색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Big Moms Club의 사업추진 Flow-Chart



### 자조동아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도모

본 프로그램은 개입초기부터 자조모임의 자발적인 구성과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실시되었는데, 다각적 지원을 통해 역량이 강화된 한부모들이 지속적인 on/off-line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정보공유 및 정서적지지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나아가 지역의 가족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확대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한부모 가족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낮고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조모임·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넘어 가족구성원의 자치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가족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족의 자생력 증진'을 강조하는 사업의 방향성은 본 센터의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기능강화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저소득지역의 여성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운영의 주도권을 가진 한부모가정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가족 및 사회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았던 한부모들이 다시 또 하나의 지역 자원이 되어, 비슷한 처지에 있는 3기·4기 여성 한부모들을 비롯한 소외된 여성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입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녀공부방, 부모교육, 집단상담, 가족한마당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한부모들이 스스로 자녀공부방 1일교사, 봉사활동, 전시 및 공연, 건강한 가족문화 캠페인 등 다양한 지역공헌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순환하는 적극적인 복지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